

구약논찬

제14권 4호(통권 30집) 2008년 12월 31일

김 상래(삼육대)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 재해석:

히 11장 8-10절의 해석에 대한 메타 주석

본 논문은 땅에 관한 야훼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히 11장 8-10절의 해석에 대한 재해석 즉 메타주석이다. 이를 위해 주어진 본문의 해석을 근거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 기사를 재해석하기도 하고, 반대로 창세기의 아브라함 기사를 '땅' 약속에 집중하여 재분석한 이후 그 결과로 히 11장 8-10절의 해석을 재해석하기도 한다.

Kim, Sang-Lae

Reinterpreting the Meaning of Abraham's Faith in Yahweh's Promise of the Land

- Metacommenting on the Interpretation of Hebrews 11: 8-10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 재해석

- 히 11장 8-10의 해석에 대한 메타 주석 -

김 상래 | 삼육대

1. 문제의 진술

신약의 구약 해석은 언제나 성서학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서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들의 하나인 신구약의 상관성 문제¹⁾에 관한 주요한 근거가 되며, 또한 “성경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라는 권위와 함께 그것이 제공하는 창조적인 해석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특정 본문에 대한 신약의 해석을 대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그 읽는 방법에 따라 어떤 이해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하젤(G. F. Hasel)은

1) 구약과 신약의 상관성을 주장하는 주요한 견해가 신약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용이나 해석을 근거로 한 견해이다. 즉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포함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신구약이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구약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Gerhard F. Hasel, *Old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MI: Eerdmans, 1979), 105-128쪽. 특별히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히브리서 11장과 구약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J. C. McCullough, “The Old Testament Quotations in Hebrews,” *New Testament Studies* 26 (1979-80), 363-79쪽.

신구약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으로 읽어야 하는지, 혹은 신약에서 구약으로 거슬러 읽어야 하는지, 혹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²⁾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 대로 먼저 본 연구는 구약의 어느 특정 본문에 대한 신약의 해석을 따라 구약을 해석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또 역으로 마치 신약의 해석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루어진 구약의 특정 본문에 대한 해석이 과연 신약의 해석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 신약의 해석에서 어떤 점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신약의 구약 해석에 대한 현대 구약학도의 메타 주석³⁾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지면 관계상 구약과 신약의 각 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며 그 문서의 기원에 따라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역사적-통시적 접근법은 사용하지 않는다.⁴⁾ 대신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책이라는 총체적-공시적(wholistic-synchronic) 접근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탐색을 위한 하나의 샘플로 히 11장 8-10절을 분석하고자 한다.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 11장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믿음으로”(ἐν πίστις)라는 구절로 설명하고 있다.⁵⁾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첫째, 개인의 이름을 거명

2) Hasel, *Old Testament Theology*, 105쪽.

3) Metacommentary란 이 용어의 의미는 성서에 대한 주석을 다시 주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석이 감추고 억제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어 다시 주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석에 대한 주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D. J. A. Clines, “Metacommenting Amos,” *Interested Parties: The Ideology of Writers and Readers of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76-93쪽.

4)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문학적-역사적 자료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William L. Lane, *Hebrews 9-13*(WBC 47B), (Dallas, TX: Word Books, Publisher, 1991), 392쪽.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목록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교의 전승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이해는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J. R. Lord, “Abraham: A Study in Ancient Jewish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68.

5) 히브리서 11장의 수사학적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M. R. Cosby, “The Rhetorical Composition and Function of Hebrews 11 in Light of Examples-lists in Antiquities,”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1985. 같은 저자, “The Rhetorical Composition of Hebrews 11,” *JBL* 107 (1988), 257-73쪽.

한 경우⁶⁾ 다른 인물들은 모두 한 번만 “믿음으로”라는 구절이 사용되었으나 아브라함은 세 번이나 사용되었다. 둘째, 다른 인물들은 모두 한 번만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히 11장 8-10절과 17-19절에서 두 번 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⁷⁾ 이 두 문단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각각 ‘땅’과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다.⁸⁾ 이 중에서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히 11장 8-10절에 언급된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2. 히 11장 8-10절의 본문 내용 및 구조 분석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히 11: 8-10).

이 본문에서 8-9절은 창세기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기사에 대한 설명이고, 10절은 히브리서 기자의 독창적 해설이다. 8절과 9절은 각각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땅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다. 그런데 8절은 그 땅으로 ‘나아감’이, 9절은 그 땅에 ‘거함’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8절은 땅으로 나아간 믿음의 증거가 “갈 바를 모르고 나간 것”이며, 9절은 땅에 거한 믿음의 증거가 “장막에 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⁹⁾ 이어서 10절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6) 히 11장 27-30에 언급된 네 번의 “믿음으로”는 그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7) 히 11장 8-19절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기사는 엄격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8-9절: 아브라함 기사, 10절: 해석, 11-12절: 사라 기사, 13-16절: 해석, 17-19절 아브라함 기사.

8) 구약에서 이 두 가지 주제는 아벨 약속의 핵심을 이룬다. 즉 ‘땅이 없는 자’이거나 ‘아들이 없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제외됨을 의미하였다. 레위 인을 제외하고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나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뜻이었으며, ‘자식이 없는 자’는 ‘생명이 끊긴 자’로 간주되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두 가지 제도가 있었다.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기업 무르는 제도’였고, 아들 없이 죽은 자를 위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형사취수법’(兄死取嫂法) 즉 levirate marriage이었다.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땅’과 ‘아들’을 중심으로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모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 거한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8절	9절
순종의 근거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	부르심을 받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감	약속의 땅에 거함
믿음의 증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	장막에 거함
믿음의 소망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10절)	

그러면 이러한 설명과 해설을 창세기의 원 본문에 적용하였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역으로 창세기 본문 자체에 대한 분석은 과연 이러한 설명과 어떻게 조화될까?

3.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8절)

1)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καλούμεος)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이 단어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설명을 창세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히 11장 8절의 설명은 과연 창세기의 어느 본문에 근거한 것인가? 물론 창 12장 1절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여호와와의 명령을 제시하고 있다.¹⁰⁾ 그러나 과연 이 명령이 히 11장 8절이 말하는 그 ‘부

9)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구약적 배경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L. F. Mercado, “The Language of Sojourning in the Abraham Midrash in Hebrews 11: 8-19: Its Old Testament Basis, Exegetical Traditions and Function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67.

10) G. McAfee는 창세기 12: 1이 “히브리 성경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였다. “Chosen People in a Chosen Land: Theology and Ecology in the Story of Israel’s Origin,” N. C. Habel/Sh. Wurst(ed.), *The Earth Story in Genesis*,

르심'일까? 창세기의 본문 구조는 간단히 답할 수 없는 분석을 요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기사는 창 12장 1절 이전인 창 11장 31-32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이백오 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¹¹⁾ 이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한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라는 사실과 그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창 12장 1절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그 이후에 주어졌다.¹²⁾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들은 것은 데라가 죽은 이후 하란에서였다. 창 12장 4절의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좃아 갔고 …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세였더라”는 본문도 이 사실을 확인한다. 그래서 웬햄(G. Wenham)도 창 12장 1절에서 말하는 ‘본토’는 “문맥상 우르보다는 하란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¹³⁾고 하였다. 그렇다면 히 11장 8절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관련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반복하여 야훼가 불러낸 이는 ‘아브라함’이며, 그를 이끌어낸 곳도 ‘갈대아 우르’라고 확인한다.¹⁴⁾ 무엇보다도 행 7장 2-3절의 스테반의 설교는 이를 분명히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58-74 (158쪽).

11) 이 논문에서는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개명 시기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으로 부른다.

12) 창 11: 31-32과 창 12: 1-3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J. Van Seters,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5), 224-25쪽. J. A. Emerton, “The Source Analysis of Genesis 11:27-32,” *VT* 42 (1992), 37-46쪽. 이 논문들은 창 11: 27-31에 대한 원전 비평적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창 2-12장에 나타난 땅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Y. Gitay, “Geography and Theology in the Biblical Narrative: The Questions of Genesis 2-12,” *JSOTS* 229 (1997), 205-16쪽.

13) G.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TX: Word Books, 1987), 274쪽.

14) 창 15장 7절에서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라고 하였다. 또 느헤미야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느 9: 7)셨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긴”(수 24: 2) 우상 숭배자였다고 밝힌다. 즉 데라는 야훼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다. 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행 7: 2-3)”¹⁵⁾고 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히 11장 8절이 말하는 “야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인가? 창 11장 31절 - 12장 4절이 말하는 대로 하란에 있을 때인가? 구약의 다른 본문들과 스테반의 말처럼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인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야훼의 아브라함 부르심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총체적-공시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야훼의 부르심은 다음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첫째, 야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며 불러내셨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 그 같은 명령을 반복하였다. 이 경우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행 7: 3)고 했다는 스테반의 언급은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창 12: 1)는 명령과 의미상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스테반의 말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이해하여 야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행 7: 3)고 하였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고 명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는 여하튼 야훼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관련 성경 본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¹⁶⁾ 그렇다면 창 11장 31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는 문학적인 차원이다. 데라의 이주를 기록하고 있는 창 11장 27-32절의 문단은 창세기의 독특한 문단 구조인 톨도트(*toldot*)로 시작한다. 즉 11장 27절이 “데라의 후예(톨도트)가 이러하니라”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문단 내에서 데라에 관한 기사는 그의 죽음이 언급되기까지 그를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둘째는 역사적인 차원이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가부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조 시대이다. 아직 가장인 데라가 생존하고 있는데 가

15) Lane은 히브리서 8-12절, 17-19절을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보았을 때 “내용과 실제적인 개요에 있어서 사도행전 7:2-8의 스테반 설교에 언급된 아브라함 기사와 분명히 일치한다”고 하였다. *Hebrews 9-13*, 347쪽.

16) 사실상 헬라어를 사용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히브리서는 이런 이해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전통적 이해를 반영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족의 이주가 아들 아브라함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는 아브라함이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데라와 롯을
데리고 간 것이다.

2) 순종하여

히 11장 8절의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
음으로…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이런 설명도 창세기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레인(W. L.
Lane)은 “순종하다라는 동사 후파쿠에인(ὑπακούειν)이 아브라함의 부
르심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은 놀랍다고 했다. 왜냐하면 창 12장이나 성
경의 다른 곳을 상세히 보아도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
문”¹⁷⁾이라고 하였다. 사실, 창세기에서 이 동사가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은 오직 이사를 번제로 드리고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였다는 사
실을 강조하는 두 번의 경우(창 22: 18; 26: 5) 뿐이다.¹⁸⁾ 그렇다면 히브
리서 기자가 이 동사를 여기에 사용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에 있
을 때”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이해에 좀 더 분석을 요하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야훼가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에 따라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그의 순종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위에서 살펴본 첫 번째 이해처럼 야훼가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
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이해하면, 아브라함은 떠나야 할 세
가지 즉 “본토 친척 아버 집” 중 ‘본토’만 떠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이다. 만일
두 번째 이해대로라면 그는 ‘고향과 친척’ 둘 중 ‘고향’만 떠난 것이 된
다. 왜냐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우
리는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이사를 번제로 드린 것과 같은
(창 22: 18)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17) Lane, 윗글, 348쪽. 강조 첨가.

18) 이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LXX)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스테반의 설교에서 언급된 “고향과 친척”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명령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이 읽고 이해하는 원전이 곧 창세기 본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이란 표현은 “본토 친척 아버 집을”에 대한 스테반의 구어적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스테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란에 있기 전”에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갈대아 우르에서 주어진 야훼의 명령은 하란에서 반복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이해가 옳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완전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라는 히 11장 8절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해야 한다. 그는 본토를 떠났다. 그러나 아버 ‘집’을 떠나면서도 아버지는 모시고 떠났다. 또 친척은 떠났어도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 그러므로 히 11장 8절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경쾌한 발걸음의 믿음이 아니라, 고민을 안고 떠나는 무거운 발걸음의 믿음이다. 그는 에프(T. H. Epp)의 표현처럼 “제한된 순종”의 길에 나선 것이다.¹⁹⁾ 이런 제한적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아버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한 동안 지체하며, 이후 조카 롯 때문에 많은 일을 겪는다. 이런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레인이 이러한 순종의 의미를 “이것은 우르를 떠나라는 부르심에 응하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마음을 언급한 것이지 순종의 행위 자체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²⁰⁾ 라고 한 것은 적절한 분석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 11장 8절의 후단은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였다. 이 본문에서 강조된 단어는 두 번이나 사용된 “나가다”란 헬라어 단어인 엑셀쎄인(ἐξελθειν)이다. 이 구절은 창 12장 1절의 “내가 네게 지시 할 땅으로 가라”에서 “가라”는

19) 데오도르 H. 에프(Theodore H. Epp),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아브라함」, (고 광자 옮김), (서울: 바울서신사, 1987), 33-34쪽. 빅터 해밀턴은 창 12 -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주목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 강 성열, 박 철현 역(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110쪽.

20) Lane, 윌슨, 348쪽. 강조 첨가.

동사 엑셀쎬(Ἐξελεθη)에 근거하고 있다.²¹⁾

이 본문에서 강조된 내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μη̄ ἐπισταμενος πο̄ ὁ ἔρχεται)이다. 히브리서의 이러한 이해는 창 12장 1절의 “내가 네게 지시 할(ἦν ἄν σοι δεῖξω)”이라는 구절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창세기 본문의 히브리어 미완료 동사 아르에카(ʾarʾekā)는 70인역의 번역 데익소(δειξω)처럼 미래로 번역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한글 개역도 ‘지시하는’이 아니고 ‘지시할’로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근거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비교적 구약의 본문 상 증거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해석을 창세기 본문에 대입하였을 때,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본문은 그들의 이주를 소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고 분명히 밝혀 주고 있기 때문이다(창 11: 31; 12: 5). 즉 그들은 갈 바를 알고 떠났다. 그렇다면 창 12장 1절의 “지시할 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한글 개역의 “지시할”이라는 역어는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²²⁾ 그것은 마치 가야 할 방향 자체를 모르고 떠났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역어는 다른 모든 영어 역본들처럼 “보여 줄”이다. 즉 창 12장 1절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류폴드(Leupold)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을 향해 그의 첫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려는 땅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야 하나님은 가나안이 그가 영원히 거처로 삼아야 할 땅임을 보여주셨다.²³⁾

21) 그러나 히 11: 8의 본문의 단어 중 창세기 12:1에 있는 단어는 “나가다” 뿐이다. “기업”(κληρονομία)이란 단어도 창 12: 1-3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땅은 기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창 15: 7; 22: 17; 28: 4 등).

22) 한글 역본 중 개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지시할”로, 공동번역은 “보여줄”로, 표준새번역은 “보여 주는”으로 해석하였다.

23) H. C. Leupold, *Genesis I*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6), 410쪽.

류폴드의 설명은 창세기의 문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른 판단임을 알 수 있다.²⁴⁾ 창 12장 1절의 “지시할”이란 표현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서 ‘보여 줄’ 것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야훼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에게 그의 기업이 될 땅을 “보여주었다.” 즉 롯이 가족 문제로 요단 온 들을 택하여 떠난 후, 야훼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 13: 14-15)고 하셨다. 이때에 야훼는 땅을 보여주고 그가 보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히 11장 8절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μη̄ ἐπισταμενος πού̄ ἔρχεται)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이다. 그러나 창세기 본문에 나타난 증거들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갈 방향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슈나이더(J. Schneider)는 그것이 “이상한 땅과 불확실한 미래”²⁵⁾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야훼가 가라는 곳으로 가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갔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한글 공동번역은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라고 매우 적절하게 번역하였다.²⁶⁾ 이것은 히브리서의 본문이 창세기 본문에 비추어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또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4. 약속의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사와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히 11: 9).

24) 물론, 창 11장 31절이나 12장 5절의 야훼의 명령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사실은 그가 그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야훼의 명령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25) J. Schneider, *The Letter to the Hebrews*, trans. by W. A. Mueller (Grand Rapids, MI: Eerdmans, 1957), 108쪽.

26)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인용도 이해를 같이함을 보여준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증은 순종해야 하였다.” Ellen G. White, *The Story of Patriarchs and Prophets*,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1972), 126쪽.

1) 약속하신 땅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땅이 야훼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설명한다. 과연 창세기의 본문에서 그런 야훼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렇다. 창세기에는 땅에 대한 야훼의 약속이 반복되어 있다.²⁷⁾

그러나 그렇게 반복된 야훼의 약속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는가? 창세기의 본문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창세기에는 가나안에 아내를 매장할 땅도 없어 당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것이 창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라의 장례시에 생긴 일이다. 그는 사라의 시체를 놓고 울다가 헛 족속을 찾아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창 23: 4)라고 청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을 매입한다(창 23: 18). 그 굴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이다. 이것이 스테반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행 7: 5)하셨다고 한 이유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니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2) 외방에 있는 것같이…장막에 거하여

히 11장 9절의 본문은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설명한다. 이 본문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야훼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외방에 있는 것처럼” 살았고, 그러한 삶의 증거가 ‘장막 생활’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해석에 대해 다음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 생활을 살았는가? 둘째, 과연 장막 생활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은 어차피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유목민의 터전이 아닌가? 왜냐하면 “부조 시대

27) 다음의 성경 절들을 참조하라. 창 12: 1; 12: 7; 13: 15; 15: 7; 15: 18; 17: 8.

내내 유목민과 반 유목민들에게는 장막 생활이 기본”²⁸⁾이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본문은 여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창세기 본문은 히브리서의 설명대로 부조들의 장막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후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고”(창 12: 8), 롯이 떠난 이후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였으며”(창 13: 18), 천사들을 맞을 때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맞았다”(창 18: 2). 또 이삭은 리브가를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고”(창 24: 67), 그랄에서도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였다”(창 26: 17, 25).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였다”(창 25: 27). 그는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도(창 31: 25; 33-34),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도(창 33: 18-19), 그리고 아버지가 거하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도(창 35: 21) 항상 장막을 쳤다.²⁹⁾

히브리서의 본문대로 과연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는가?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유하였다(창 25: 7).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출생하였으므로(창 21: 2) 이삭은 75년 동안 부친과 함께 장막 생활을 하였다. 야곱이 출생하였을 때에 이삭이 60세이므로(창 25: 26), 아브라함은 160세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야곱과 15년을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히브리서의 설명은 창세기 본문이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된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장막에 거한 것’이 믿음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창세기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선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이 야훼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살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제공한다. 다른 민족이 그곳에 정착하여 있었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밖에 없었다.”³⁰⁾

28) Lane, 윗글, 350쪽.

29) 부조들의 장막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D. J. Wiseman, “They Lived in Tents,” In *Biblical and Near Eastern Studies*, FS W. S. LaSor, Ed. G. A. Tuttle (Grand Rapids, MI: Eerdmans, 1978), 195-200쪽.

30) Clifton J. Allen (ed.),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ume 12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72), 81쪽.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주변의 등장인물들의 ‘주거 양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의 설명대로 ‘장막’에 주목하여 창세기 등장인물들의 주거 양식을 살펴보면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는 인물이 롯이다. 창세기 본문에 대한 관찰에 의하면 롯의 주거 양식은 아브라함과 그의 관계에 따라 변화된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장막에 있었다.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창 13: 5)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축 문제로 그들이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분명히 롯은 장막에 거하였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창 13: 12). 그러므로 소돔에 이르기까지 롯은 장막 생활을 하였다. 이후 창 14장에서 롯은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에 휘말려 사로잡혀 갔다가 아브라함 덕분에 다시 돌아온다.

그 이후 롯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곳이 저 유명한 창 19장의 소돔 성 기사에서이다. 그런데 이 때 묘사된 롯의 거처는 더 이상 장막이 아니다. 천사들이 방문하여 초대를 받은 롯의 거처는 ‘집’이었다(창 19: 3). 그 ‘집’은 식탁도 있고(4절), 대문도 있었다(6절). 롯은 거기서 더 나아가 갔다. 그는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하였을 때 ‘성문’에 앉아 있었다(1절). 구약 시대에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창 19장에 나타난 이러한 롯의 삶의 양식을 창 18장에 묘사된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손님 대접’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거 양식’에 따라 ‘손님 대접의 양상’도 완전히 다름을 파악할 수 있다. 창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았다가”(창 18: 1) 손님을 맞지만, 롯은 “성문에 앉았다가” 손님을 맞는다(창 19: 1). 아브라함은 장막에 들어가 요리하지만(창 18: 6), 롯은 집으로 들어가 식탁을 베푼다(창 19: 2).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서 쉬라고 하지만(18: 4), 롯은 집으로 끌어들인다(창 19: 3). 이 사실을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³¹⁾

31)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병행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고든 웬햄(Gordon Wenham), *빛깔*, 131-133쪽.

아브라함의 '장막' 삶(창 18장)	롯의 '집'의 삶(창 19장)
장막 문에 앉았다가(1절)	성문에 앉았다가(1절)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2절)	종의 집으로 들어와(2절)
나무 아래서 쉬소서(4절)	식탁을 베풀고(3절)
장막에 들어가 요리(6절)	집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으며(10절)

히브리서 기지는 구약의 인물들의 삶을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정리한 다음, 히브리서의 반복된 형식인 교리-교훈의 패턴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히 12: 1)고 하였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장막’에 거한 아브라함의 삶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삶”(히 12: 1)이다. 그러나 소돔에서 ‘집’에 거한 롯의 삶은 그 반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레인의 설명은 적절하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문화에서 영원한 거처를 세우기를 거절하였음을 의미한다. “장막에 산다는 것”은 믿는 자들은 그들의 목표가 아직 장래에 있는 순례자와 나그네라 표징이 된다.³²⁾

장막에 거한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는 히브리서의 설명은 그 당시 사람들도 여건만 허락하면 “이동 가능한 장막에 거하면서도 고정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³³⁾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³⁴⁾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아브라함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도 롯처럼 장막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거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같이...장막에 우거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라는 히브리서의 설명은 창세기 본문의 정보를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32) Lane, 윗글, 320쪽.

33) G. 발로우, R. 터크,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베이커성경주석 51, 박양조 역(서울: 기독교문사, 1982), 673.

34)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모든 소유와 사람들”(12: 5)을 가지고 나왔고, 애굽에서 나온 후 “육축과 은금이 풍부”(13: 2)하였으며, 롯을 구할 때 “사병 318인”(14: 14)을 동원하였고, 막벨라 굴 살 때는 “준가(full price)를 주고”(23: 9) 샀으며, 리브가를 구할 때는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24: 35)다.

5. 약속의 땅을 향하고 거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땅에 대한 야훼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언급 중 10절은 창세기의 기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히브리서의 창조적인 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창세기의 본문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수직적-종말론적 해석이다.

10절의 해석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것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한 것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³⁵⁾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사실은 접속사 가르(yāq)가 9절뿐만이 아니라 그 앞 절인 8절까지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과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기사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의 성취가 지상의 땅이 아님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16절은 하나님이 예비한 이 한 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런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에 약속하신 땅에서 “외방에 있는 것같이 장막에” 살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터가 있는 성’은 ‘장막과 “생생하게 대조”³⁶⁾되면서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그 견고함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시에 아비멜렉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창 23: 4)라고 하면서도, 심지어 스테반의 말처럼 죽을 때까지 “밭붙일 만큼도”(행 7: 5) 땅을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를 유추하게 되는 것이다. 신약의 창조적인 설명이 구약을 깨닫도록 조명해 준 것이다.

35) 여러 본문과 비교하여 살펴 본 이 구절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L. M. Muntingh,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Hebrews 11:8-10 in the Light of the Mari Texts," In *De Fructu Oris Sui*. FS A. van Selms. Ed. I. H. Eybers, F. C. Fensham, C. J. Labuschagn, W. C. van Unnik, and A. H. van Zye. (Leiden: Brill, 1971), 108-20쪽.

36) Harold W. Attridge, *The Epistle to the Hebrew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323쪽.

6.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히 11장 8-10절을 하나의 샘플로 삼아 그것을 창세기 본문과 비교하며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히 11장 8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본문은 창세기 본문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을 때 그 의미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야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비록 차마 떨치지 못하고 데리고 가는 아버지와 조카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한 채 믿음의 마음으로 본토를 떠나 나아갔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는 신약의 압축된 해석이 구약의 원 본문에 의해 확대되고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히 11장 9절의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는 본문은 창세기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사실들을 관찰하여 깨닫게 해주는 지침이 된다. 이 설명에 의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막 생애’, 그리고 ‘집에 거한’ 루트의 주거 생활의 의미가 드러났다. 이 경우는 신약의 압축된 해석이 구약의 원 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 해석상의 지침이 되었다.

셋째, 히 11장 10절의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는 구절은 창세기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히브리서의 창조적인 수직적-종말론적 해석이다.

이러한 탐색은 결국 신약에 인용되거나 해석되어 있는 구약의 본문들은 (1) 신약의 해석을 준거로 삼아 구약의 본문에 적용하여 구약 본문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2) 다시 구약의 본문 자체를 분석하여 그것이 신약의 해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내려 읽어야 하기도 하며, 신약에서 구약으로 거슬러 읽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37)

37)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나머지 구약 인물들도 같은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참고 문헌

- 에프, 테오도르 H.,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아브라함」, (고 광자 옮김), (서울: 바울서신사, 1987). 원제는 Theodore H. Epp, *The God of Abraham* (Lincoln, NE: Back to the Bible, 1970).
- 해밀턴, 빅터, 「오경개론」 (강 성열/박 철현 옮김),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원제는 V. P. Hamilton, *Handbook on the Pentateuch: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Grand Rapids, MI: Baker Book, 2005).
- Allen, C. J. (ed.),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12,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72).
- Attridge, H. W., *The Epistle to the Hebrew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Clines, D. J. A., *Interested Parties: The Ideology of Writers and Readers of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Cosby, M. R., "The Rhetorical Composition and Function of Hebrews 11 in Light of Examples-lists in Antiquities,"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1985.
- Cosby, M. R., "The Rhetorical Composition of Hebrews 11," *JBL* 107 (1988), 257-73쪽.
- Emerton, J. A., "The Source Analysis of Genesis 11:27-32," *VT* 42 (1992), 37-46쪽.
- Gitay Y., "Geography and Theology in the Biblical Narrative: The Questions of Genesis 2-12," *JSOTS* 229 (1997), 205-16쪽.
- Hasel, G. F., *Old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Grand Rapids, MI: Eerdmans, 1979).
- Leupold, H. C., *Genesis I*,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6).
- Lane, W. L., *Hebrews 9-13* (WBC 47B), (Dallas, TX: Word Books, Publisher, 1991).
- Lord, J. R., "Abraham: A Study in Ancient Jewish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1968.
- McAfee, G., "Chosen People in a Chosen Land: Theology and Ecology in the Story of Israel's Origin," N. C. Habel/Sh. Wurst(eds.), *The Earth Story in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58-74쪽.
- McCullough, J. C., "The Old Testament Quotations in Hebrews," *NTS* 26 (1979-80), 363-379쪽.
- Mercado, L. F., "The Language of Sojourning in the Abraham Midrash in Hebrews 11:8-19: Its Old Testament Basis, Exegetical Traditions and Function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67.
- Muntingh, L. M.,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Hebrews 11:8-10 in the Light of the Mari Texts," I. H. Eybers/F. C. Fensham/C. J. Labuschagn/W. C. van Unnik/A. H. van Zye(eds.), *De Fructu Oris Sui. FS A van Selms*, (Leiden: Brill, 1971), 108-120쪽.
- Schneider, J., *The Letter to the Hebrews*, (W. A. Mueller 옮김), (Grand Rapids, MI: Eerdmans, 1957).
- Seters J. Van, *Abraham In History and Trad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 University Press, 1975).
- Wenham, J. Gordon, *Genesis 1-15* (WBC 1), (Waco, TX: Word Books, 1987).
- White, Ellen G., *The Story of Patriarchs and Prophets*,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1972).
- Wiseman, D. J., "They Lived in Tents," G. A. Tuttle(ed.), *Biblical and Near Eastern Studies*, FS W. S. LaSor, (Grand Rapids, MI: Eerdmans, 1978), 195-200쪽.

검색어

히브리서 11장 8-10절
아브라함
메타주석
재해석
땅
약속의 땅
외방
장막과 집

투고일: 2008년 10월 1일
심사일: 2008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일

Reinterpreting the Meaning of Abraham's Faith in
Yahweh's Promise of the Land
- Metacommenting on the Interpretation of Hebrews 11:8-10 -

Sang-Lae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a reinterpretation, i.e. metacommentary of Hebrews 11:8-10 which is already an interpretation of the faith of Abraham in Yahweh's promise of the land. To do this, the Abraham narrative in Genesis will be analyzed on the grounds of the given textual interpretation, then conversely the interpretation of Hebrews 11:8-10 will also be re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Abraham story in the book of Genesis as if Hebrews 11:8-10 did not exist. Through this inquir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irstly, the text "By faith Abraham, when called to go to a place he would later receive as his inheritance, obeyed and wen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NIV, Heb 11:8) must be interpreted as "Abraham went to the land of Canaan by faith without knowing what kind of place it was, even though he hesitated and was worried about his father and nephew whom he would abandon when he

was called to leave his country, kindred and his father's house". This case shows the need to reinterpret the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Hebrews based on the original textual information of the book of Genesis.

Secondly, the text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NIV, Heb 11:9) provide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easily-overlooked 'the life dwelling in the tent' in the book of Genesis. This instance of applying a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to understand the original text in the Old Testament may become an interpretational guide.

Thirdly, the text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NIV Heb 11:10)" is a creative vertical-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in Hebrews, which cannot be found anywhere in the book of Genesis.

Keywords

Hebrews 11:8-10
Abraham
Meta commentary
Reinterpretation
Land
Land of Promise
Foreign Country
Tent and House